

제40주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11/7 서울로 가자! 노동악법 재개정! 많이 모일수록 힘은 더 커집니다



전태일평전을 읽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 참가결의서를 씁니다.
비정규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참가를 위해 십시일반에 동참합니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로 향하는 노동자들의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단위사업장, 지역본부, 산별노조로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단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노동기본권 사수와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입니다.
노동탄압에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부와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할 국회에
민주노총의 힘과 기세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반민중적인 G20을 규탄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인 대안을 천명하는 자리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빈민, 학생, 청년, 시민사회운동을 비롯한
진보민중진영의 단결과 연대를 호소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힘겹게 투쟁하는 어느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기운을 얻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동지도 물론이고요!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 문제해결! G20 규탄!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2010년 11월 7일(일) 15시 **서울광장**

전태일 정신은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정신이다.



인간적이어서, 진보적이었던 사람! 전 · 태 · 일

1970년 11월 13일, 스무한 살의 노동자가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동자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자신이 살던 사회에서 느꼈던 고통과 절규는 바로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이 받는 고통이었고, 절규였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외쳤던 절규는 인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수 많은 민중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여공들을 위한 마음, 인간에 대한 사랑과 동지적 의리를 지킨 전태일은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노동자를 비인간화하고 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으로 다루는 사회에 맞서 학습하고, 조직하고 대중들과 함께 실천했습니다.

전태일은 민주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 자본의 억압에 맞서 몸을 불살랐습니다. 현실을 타하기보다 행동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태일정신은 불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정신인 것입니다.

대학생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노동자 전태일은 단순히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본이 만든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자본의 지배질서에 저항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것은 노동법 준수를 넘어 노동해방과 민중해방의 횃불을 치켜든 것입니다.

비타협적인 투쟁으로 온몸을 살라 노동운동의 불꽃을 세워낸 전태일, 그를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실천과제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의 삶과 투쟁이 민주노조 운동의 근본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전태일 정신은 무엇인가

굳건한 계급적 단결

재단사 전태일은 자신의 이익보다 어린 시다 여공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을 모색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만의 이익이 아니라 계급적 약자와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앞세웠습니다. 2010년,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정규직이 대량 확산되고 있는 조건에서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간부 활동가들과 조직노동자, 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의 실현

당시 노동기본권과 열악한 노동조건,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소외당한 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태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수 많은 지식인들과 국민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이 땅에 노동자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의 죽음은 사회연대운동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심각한 사회양극화, 근로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 많은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 사회복지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 문제를 우리의 과제로 하고 사회연대 운동의 중심에 민주노총이 서야 합니다.

사회변혁의 전망과 실천

전태일은 투쟁으로 국가권력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실천에서 보듯, 그리고 현재 자본과 지배권력의 탐욕에서 보듯 노동자들의 계급적 처지는 청원이나 권력과의 타협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권력이 실현되어야만 노동자들의 자주성과 인간다운 삶이 근본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 권력 재편기에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가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을 세우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는 노동자들의 힘 있는 단결과 위력적인 투쟁을 준비하는 중대한 계기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MB 정권의 노조말살정책,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태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으며, 노동자, 민중 그 누구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타임오프 및 노조탄압, 불법파견 및 간접고용, 특수고용, 공공부문 노동조합 탄압,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극단적인 노동배제 정책은 노동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했고,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공정한 사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7일 노동자대회, 우리 다시 전태일이 되자

11월 7일 노동자대회를 광범위한 미조직노동자, 시민, 학생이 함께하는 대회로 만들고, 사회연대를 새롭게 구축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역대 어떤 노동자대회보다 가장 규모 있고 큰 힘을 모아 집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권과 자본의 잘못된 반노동, 반노조이데올로기를 분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실현합시다!!



그들만의 잔치 G20을 규탄한다!

G20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기준도 없이 모인 20개 나라 우두머리들에게 세계경제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계경제위기에 책임이 있는 강대국들은 참여하되 가장 피해를 입은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나라들은 배제된 G20!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70억 지구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의제를 논의하는 겁니까?

G20은 대안이 아닙니다

G20은 세계금융위기에 대처하겠다고 만들어졌지만 금융위기를 일으킨 투기금융자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을 얘기하지만 알맹이는 없이 그저 말뿐입니다. G20이 진정 세계경제 위기를 해결할 뜻이 있다면 금융거래세, 은행세 도입으로 금융자본의 투기거러를 규제하고,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조치를 내려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의장국 자격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금융규제나 부자과세에 대해 그나마 시늉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G20에서 합의된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 노점상, 노숙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한 'G20 경호안전특별법'에 알몸투시기, 음향대포, 다목적발사기 등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